

##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똑똑한 에너지절약방법

지구를 생각하는 일은 먼저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 낭비되는 전기, 물 등의 소중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는 일, 똑똑한 에너지절약방법을 배워본다.

###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에너지는 꼭 필요한 만큼 아껴 쓰는 것, 그것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막는 방법이다. 현재 지구는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연간 50억 톤이 넘는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이것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로 앞으로 20년 내에 지구 평균 기온 3~6.5°C 상승시켜 수면이 약 65cm 높아지게 하고 각종 기상이변을 낳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는 국제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기후 변화협약을 통해 이산화탄소(CO<sub>2</sub>) 등 지구온난화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각종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이를 무역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구온난화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GNP 7.3%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석유로서 중동지역이 전세계 매장량의 66.3%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별 생산량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 중국, 멕시코 순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에너지자원이 없어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항상 불안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사용할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석 에너지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 앞으로 40~60년 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하나, 먼저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겨울철 실내온도는 18~20°C가 적당하지만 겨울철에 내복을 입게 되면 실내온도를 6~7°C 낮추어도 같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사용할 때도 실내온도는 26~28°C가 적당하다. 실내외 온도차가 5°C 이상 지속될 경우 자율신경이 이상을 일으켜 두통, 현기증, 위장병, 신경통, 심장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에어컨 실내온도를 1°C 낮추면 소비전력은 약 7% 정도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가동하면 냉방효과가 탁월해지고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면 3~



5%의 에너지효율이 증가된다.



들.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가정의 소비전력 중 11%가 대기전력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휴대전화를 충전하지 않더라도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아 놓으면 전력이 계속 낭비가 되고, 절전형 멀티탭도 스위치를 끄지 않으면 전력이 낭비된다. 또한, 전기밥솥보다는 압력밥솥이 전기를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편의를 위해 전기밥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밥을 7시간 이상 보온하면 새로 밥을 짓는 것과 같은 전력이 소비된다고 한다. 장시간 보온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냉동실에 밥을 보관해 필요할 때 해동해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인 이 하루 컴퓨터 1대 사용 시 전기세는 최대 1,000원 내외인데, 전체 소모되는 전기의 70%를 모니터가 소모하고 있다.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모니터 전원을 끄고 나가는 것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대기 전력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이는 것은 에너지를 줄이는 똑똑한 방법이다.



**에너지절약**

셋. 똑똑한 소비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에너지 절감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에너지 효율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표시하고 있는데,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에 비해 약 30~45%의 에너지를 적게 소비한다. 그 확인방법은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절약마크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고효율 조명등으로 바꾸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백열등을 전구식 형광기구로 바꾸면 70% 이상 절전되고 수명도 8배나 길어진다. 최근 들어 대형 가전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냉장고 크기는 가족 1인당 40~50리터가 적당하다고 하고 4인 가족일 경우 160~200리터짜리가 알맞다.



넷.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연필이나 공책, 문구류 등 폐품 재활용 지혜를 가르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의 솔선수범으로 아이들에게 에너지절약을 가르쳐주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의 환경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

다섯. 물을 아껴 쓰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연예인처럼 3분 샤워를 실천하는 것도 물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목욕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샤워를 하는 것이 좋고 샤워를 할 때에도 물살을 너무 세게 하면 물을 낭비하게 된다. 그리고 수도물을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다. 물을 틀어놓은 채로 음식이나 그릇을 씻지 않도록 하고 세차는 호스보다 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다. 화장실 변기 물탱크에 벽돌을 넣는 것도 물을 아끼는 방법이다.